

‘남원 화장품’ 해외 시장 본격 개척

한미양행과 협력 베트남 시장 집중... 베트남 헬스케어 유통전문기업 대표, 남원 방문

남원시가 ㈜한미양행과 협력해 남원 기능성 화장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한미양행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10일 베트남 헬스케어 유통전문기업 안틴팻(An Thinh Phat)의 대표이사과 부사장이 남원을 방문했다.

안틴팻의 Pham Ngoc Huan 대표이사과 Bùi Anh Tuan 부사장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남원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의 한미양행 화장품 공장을 방문, 원료연구개발·가공기술, 생산 및 제조 인프라를 우수성을 확인하고, 인프라 및 연구기술과 남원의 원료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한미양행과 공동 개발 중인 남원 마가복과 배롱나무 화장품 원료를 활용에 출시할 기능성 화장품을 베트남 시장에 적극 유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틴팻은 베트남 내 ‘한미페이스워시(Hammi Face Wash)’ 프랜차이즈 10개 지점을 운영하는 전문 유통기업으로, 한미양행의 ‘한미화장품’ 브랜드



남원시가 ㈜한미양행과 협력해 남원 기능성 화장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한미양행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제품(헤어&바디케어, 스킨케어, 마스크팩&클렌징 등)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베트남 외에도 태국, 필리핀(Sambioscience, LAKPU)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양행은 1967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남원시바이오산업 연구원과 작년 3월 8일 ‘천연물 바이오산업 기술 및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가복과 배롱나무 등 지리산 자생 식물을 활용

한 K-소재 기반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미양행은 베트남 총판(An Thin Phat)과 협력하여 베트남 내 피부관리 프랜차이즈샵 10개 지점을 오픈하고, K-Cosmetic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천연물 소재 개발 노하우와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남원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장류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순창군이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며 축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축제는 순창군의 전통 장류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축제 관련 기관·단체 대표, 전문가, 군의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위원들은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 홍보

등 전반적인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 선출도 진행됐다. 위임장으로 선출된 운영식 위원은 “순창장류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는 전인백 위원이, 간사로는 서화중 위원이 각각 선출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순창장류축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면서 “축제를 통해 순창의 전통 장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장류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이양형 기자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참여공동체 모집

남원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참여공동체를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집·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성장하

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 규모이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에 기반을 둔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5인 이상의 시민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공동체 성장 단계에 따라 진입 단계 500만원 지원 팀(10팀)과 발전 단계 1,000만원 지원



팀(3팀)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향사랑기부 감사이벤트 ‘호응’

임실군, 이벤트 기간 347건 기부... 14일까지 진행

임실군의 새해 첫 고향사랑기부 소통을 위한 감사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둔 22일부터 이날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 이벤트를 전개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이벤트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임실군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담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3만 8천원 상당의 임실치즈 및 유제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벤트 기간인 22일부터 10일까지 기부 건수는 347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기부한 총 기부 건수인 483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설 명절을 전후해 진행 중인 기부이벤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면서 임실군으로의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이 기간 기부자들을 살펴보면 도내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경남북, 충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치즈의 수도 임실군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치즈 담례품 인기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적으로 3만 원 상당의 담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임실군은 특별히 3만8천원 상당의 치즈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기부자의 70% 이상이 임실치즈를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치즈&소시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당첨자에게는 건강을 고려한 무가당 요구르트와 숙성 치즈까지 추가 증정하는 등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군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이벤트가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임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기부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인 이벤트 추진을 통해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민생해결 위한 간담회 열어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2025년 민생해결을 위한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바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의회는 연초 농업인 단체와의 만남을 갖고 지난해 쌓았 하락으로 야기된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장기적인 쌀값 안정 대책과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남원시 양파연합회 회원들과 만나 양질의 양파 생산을 위한 기계화 사업, 병해충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 출하 후 보관을 위한 시설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규모에 경자면적 확보 등 선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장애인 가족 대표들,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의 간담회, 건설업



채 수의계약 총량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김영태 의장은 “언제나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뜻을 섬기는 것이 의회의 첫 번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더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한국관광공사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순창군과 한국관광공사가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강소형 잠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순창발효테마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관광 활성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순창발효테마파크 및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상품화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관광 현황 분석 및 개선 전략 수립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트래블 리더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홍보영상과 안내판 제작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번에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강천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발효테마파크의 관광 잠재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순창발효테마파크를 더욱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 전라권의 새로운 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형 기자

임실군 폭설 피해 농장 찾아
작물 관리 현장지도 강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농업과학원(원장 이승돈)이 전북농업기술원, 임실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도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폭설 피해로 상심이 큰 임실군 내 피해 농장을 찾아 농업인 위로와 피해 복구를 위한 작물 관리 등 현장 지도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유래없는 폭설 및 최근 한파 등으로 축사 및 시설하우스 전파 등 전국 곳곳에서 농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과학원 및 일선 농촌지도기관은 폭설 피해 농장을 찾아 시설 복구와 피해 하우스 재배 작물의 적절한 생육 관리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